

은퇴연구 패러다임의 추가:

은퇴인식의 틀과 시간자본

**The addition of retirement research paradigms :
Recognized framework of retirement and capital formation by the time**

허 균 석.황덕순

목 차

I. 생태환경속의 인간과 삶의 질

- 1.1 생태체계와 인간의 행복
- 1.2 생태체계내의 능동적 대처

II. 노년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 2.1 고령화시대와 한국의 사회 문화
- 2.2 사회통합적 삶의 질

III. 노년기 자본으로서의 시간

- 3.1. 노년의 준비와 시간 자본
- 3.2. 시간과 규모의 경제효과
- 3.3 시간자본의 상대성
- 4. 시간자본의 현실적 활용
- 5. 시간자본과 노후직업
- 6. 시간이 주는 자유에너지

IV. 나로부터 시작되는 노년준비와 삶

- 1. 내가 설정 하는 노년기 삶의 질
- 2. 노년준비의 주체로서의 나
- 3. 나와 다른 생태체계와의 인식의 차이
- 4. 노년준비에 대한 되묻기
- 5. 삶의 질 추구 방법의 문제
- 6. 내가 설정하는 삶의 질, 비교로부터의 자유

V. 노년기 삶의 질, 경제적 준비의 한계를 넘어서

은퇴연구 패러다임의 추가:

은퇴인식의 틀과 시간자본¹⁾

황덕순²⁾, 허균석³⁾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의 문제는 단순한 노년층의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노령층의 삶의 질은 개인을 포함한 사회생태체계의 전 방위적 요소와 관련을 갖는다. 노령층의 삶의 질은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확산성을 내포하고 특정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령층의 삶의 문제적 접근은 노령층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문제가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개발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령화는 개인, 사회, 국가의 전 공동체적 관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때 노년층의 삶의 질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준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질적 수준의 문제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노년기 삶의 만족은 경제적 부담 문제의 해결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체계 내의 삶의 질의 총합적 관련요소의 기능적 의미를 확인하고, 시간의 자본 요소로서의 성격과 현실적 이용 가능성을 노년기 삶의 질 고양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요소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질적 수준, 시간자본 에너지와의 긴밀한 관련성, 경제적 준비를 포함 하며 아울러 우리의 생각과 활동과도 관련되는 핵심가치로서 전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는 '선택적 준비'가 아니라 '의무적 포괄적 준비'로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과 내용을 삶의 질과 연계하였다. 개별성과 독특성이 조화된 삶의 질에 관한 정립을 통해 개인의 노력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회 생태계 내에서 삶의 질 성취 속성을 고찰하고, 자기 몸짓에서 비롯된 의미 총합적 결과만이 노년기 삶의 질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아직 노년층 삶의 질 관련 영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정부부처를 비롯한 정책 공급자들의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의 문제는 객관적 사회 환경과 개인의 의지의 발현으로서 노력, 그에 함께하는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 평가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자기평가물의 속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 고령화 사회, 노년층, 삶의 질, 사회통합, 시간자본, 의무적 준비]

I. 생태환경속의 인간과 삶의 질

1.1 생태체계와 인간의 행복

인간은 일정한 자연 환경 내에서 산다. 또한 인간은 자연환경을 기초로 인간이 발전시킨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라는 체계 속에서 산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사회 물리적 환경의 한 중심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삶을 이끌어가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 주체적 인간의 삶의 모습은 개인과 환경을 둘러싼 어느 일방통행의 작용이 아닌 양방향의 작용이고, 주체

1) 본 논문은 2001년도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논문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E-mail:dshwang@chonnam.ac.kr

3)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win-hgs@hanmail.net

와 피동적 객체를 고정시켜 구분하지 않는 균등한 상호관계성을 전제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복합적 환경체제 속에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 없이 동등하게 연결되어 가는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존재감등 개인과 환경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질서 정연하게 조절되는 체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론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개인의 모습은 각 개체간의 생존경쟁에 의해 자연 진화가 이루어 나타난 결과이며,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행복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렇듯 행복은 삶의 전방위적 요소와 관련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과 관련 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⁴⁾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관계요소는 주거 장소, 기초 생활비, 직업, 여가 등이며,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의 관계요소는 친구 관계, 관심과 사랑, 자존감 등을 포함 한다. 행복과 삶의 질은 개인적 삶속에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지역사회 등 공동체는 한 지역에서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이 단순히 포함되는 것 이상의 소속감을 지닐 때 사회적 행복감을 배가 시킨다. 사회환경 체제 내에서 개별의 자체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단위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 한다. 삶의 주기적 변화의 발생이 환경에 의해서든 자발적이든지 간에 한 집단, 사회에서의 개인의 변화는 그 집단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변화 시킨다. 뿐만 아니라 전파된 변화는 또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집단으로 전파되어 결국에는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은 상호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의 한 개인에서 일어나는 삶의 양적·질적 변화는 무한의 순환을 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노년층의 문제는 특정시기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확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의 특성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환경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의 노년기의 삶의 문제는 개인생태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생태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노년기 행복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는 개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조건 변화에의 적응문제로 귀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태계도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은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체제 수준에서도 `질적 공존`이라는 명제하에 삶의 질 논의가 중요하다. 비록 그 체계마다 수준별 상호작용의 성격이 다르지만, 개인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공동체나 전체생태계 사이의 경쟁과 협조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령층의 삶의 문제적 접근은 노령층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명분을 갖게 한다. 최근에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노년기의 대한 의무적인 생존 환경의 제공이 아니다. 개인의 객관적 주관적요소의 충족의 문제를 함께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적관계망이, 지역사회가, 국가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삶의 질의 문제는 총체성을 가지며 객관적인 물리적 준비요소와 더불어 주관적, 사회관계적 요소를 함께 갖는다.

4)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1.2 생태체계내의 능동적 대처

고령화 사회의 핵심문제 중의 하나로 노인문제를 “노인의 기본적 생존과 욕구를 본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 충족시키지 못하여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5)으로 규정하고 있다. 삶의 질이 가장 급격히 저하되기 쉬운 노년기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개발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인간세계에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생성하여 사회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의미적 존재로 사회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단절적이지 아니라 연속적이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노년기를 맞이한 개인도 사회의 일부로서 사회속에서 행복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문제는 특정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삶의 일부 준비요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여러 유기적 요소들의 하나의 통합적이거나 종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간의 노년기의 삶의 질 논의에 있어서 지나친 개인적 존재로서의 준비의 강조는 사회와 개인, 사회적관계망과 개인사이의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사회와 개인을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노년기 삶을 개인의 삶의 문제로 국한시켜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을 제공하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인간행복의 전체적 관점에서 경제적 준비는 산술적으로는 작은 일부분일 수 있지만 주거, 의료, 소비 등을 행하는 인간의 현실 작용면에서 볼 때 노후준비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준비는 방대한 우주보다 더 크게 삶의 질에 매순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국한한 노년준비 강조는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는 가계의 대부분의 예비노령층을 자원 이용 효율이 작은 종으로 남게 하거나 충분한 자원을 제때에 획득하지 못하여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그 사회에서 밀려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도 한다. 행복은 단순히 경제적 개별요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관적 사회적 관계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총체적 요소임에도 삶의 질의 관점을 경제문제로 제한하는 것은 삶의 시각을 단순화 시키고 삶의 과편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부분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경제흐름에서 가계자산에는 자원이 유한하다. 제한된 수입에서 비롯된 한정된 가계자원은 어느 한 쪽이 자원을 획득하면 다른 쪽이 그만큼 상실해야 하는 영합 세계⁶⁾이며 경쟁 시간의 연속이다. 노년기의 문제와 현재의 지문제는 경제학의 기대와는 다르게 `경쟁배타의 원리`⁷⁾는 작동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경제적 문제와 구분된다. 경제문제에 국한된 노년준비의 강조는 현재의지의 문제와 미래 문제로 인식되어 가용자원에 대한 경쟁은 유한한 동일한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노년은 문제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 즉시적 경쟁소멸의 주원인은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금쪽같은 `또 다른 나`의 먼 미래, 나의 분신인 자녀의 장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희생적 헌신, 급박한 가계대

5)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p.38

6) 제로섬게임(zero-sum game);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영(零)이 되는 게임

7) 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 92

경쟁배타의 원리란 자원이 한 종을 부양 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장 그 자원을 빠르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종만이 살아남게 된다

출의 해결 등의 현재의지 문제가 나의 노년의 삶의 대한 인식의 폭넓은 시야를 차단한다. 당면한 현재의지 문제 앞에서는 나의 노후를 위한 간섭경쟁⁸⁾은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용경쟁⁹⁾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삶의 질과 경제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딜레마, 더 나아가서 가계의 현재의지 문제와 미래에 당면할 본인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잠재의지문제 사이의 갈등은 현재를 그대로 인식한 상태로는 해결의 실마리는 없다. 삶의 질과 전체 행복의 관계를 sein의 관점에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층의 삶에 대한 재인식과 일정한 틀의 형성이 필요하다. 나의 삶에 대한 의미가 확보된 후 처절한 sollen의 대한 의지가 덧붙여질 때 `현재의 나`가 보이고 `미래의 존재론적 의미 있는 나`가 보이게 된다. sein과 sollen의 대한 냉철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노년층의 문제를 `경제적 준비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인식할 뿐이다. sein과 sollen의 엄정한 의미의 재인식이 있을 때 노년기의 삶이 단순히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애적 결집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또한 노년기 삶에 시간이 어떻게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전생애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된다. 삶의 전체적 틀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II. 노년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2.1 고령화시대와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문제와 더불어 최근 선진 산업 국가들의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¹⁰⁾에 접어들었고, 2011년 10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자인구는 현재 약 4,887만명의 전체인구 중 535만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발전과 함께 보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의 증가, 그에 따른 건강 관련 서비스 증대와 체계적 관리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풍부한 영양과 주거 위생환경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사망률 감소로 노인 인구 절대수가 증가하게 된 것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의 증가와 달리 IMF이후 극심한 경제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산업 재편성 일환으로, 다른 선진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극심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기퇴직,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확대로 국민의 삶의 실질만족도¹¹⁾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그와 더불어 노동력이 경제적 부와 직

8) 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 92

간섭경쟁은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종이나 다른 사람을 그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쟁

9) 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 92

이용경쟁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종이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이 살아남은 경쟁.

10)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고령화사회는 7%이상, 고령사회는 14%이상, 초고령사회는 20%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11) 한국씨티은행, 2009, 온라인 설문 조사, '현재 삶의 질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만족한다' 43%가 응답,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평균 67%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3123261>

결되던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 최첨단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 서구 개인주의 심화와 함께 변화되는 사회추세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전통적 사회경제구조와 가계구조의 변형을 초래하여 각 개별 주체들의 삶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실현된 결과라는 점에서는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개인, 사회, 국가의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부담일수 있다.¹²⁾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오늘날 개인, 사회, 국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은 고령화는 노년층의 개인의 삶의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구조, 재정과 금융, 직업환경, 주택시장, 사회문화 등 전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영양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생활환경 개선은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고, 최빈사망연령¹³⁾이 상승하여 100세 생존시대에 “더욱 길어진 노후”는 많은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낮은 합계출산율¹⁴⁾과 우리나라 특유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양육비의 부담은 소자녀 가치관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로 근로방식의 재편 등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령층의 급격한 증가는 대다수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여력이 없는 노년층의 상품구매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향후 중장년의 준비된 예비노년층에 비해 상품구매력이 보다 낮아지게 되어 노년층내의 양극화를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산업분야에서는 인구고령화에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급격한 성장과 쇠락의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년층의 증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양산 할 수 있다. 저출산, 핵가족, 단독가구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급증으로 주택가격의 전반적 하락과 소형 평수의 선호가 강해지고 노인 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주거시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¹⁵⁾도 예상 된다. 그리고 노년층의 증가는 가계경제와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감소와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로 저축률이 줄어들게 되어 가용자금의 축소, 기업활동 저조로 인한 투자위축,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 된다. 고령층의 과도한 증대는 개인이 속한 사회생태체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간병비등 의료 및 복지비용,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재정불균형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불균형이나 재정적자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 조세인상 또는 다른 부문과의 예산 경쟁으로 국가 재정위기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층 인구의 급증은 사회생태체계의 긴밀한 협동을 긴요하게 할 수도 있다. 경제, 국방, 교육, 문화증진, 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부문과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게 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은 고령으로 인한 농업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말미암아 노년층의 삶의 질은 더

12) 박동석 외(2003), 고령화 쇼크.서울 : 국민포메이션, p.9

13) 최빈사망연령이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 최빈사망연령은 1990년 73세, 2000년 77세, 2008년 85세였다. 2011년 7월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에는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2009년 기준 미국(2.01명) 영국(1.94명) 일본(1.37명)이며 한국은 2010년 기준, 통계청 통계결과는 1.23명이다.

15) 한편으론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인구 고령화 등 평균수명 증가로 부동산 수요역시 증가하여 부동산가격은 지속되고, 주택연금제도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하는 견해도 있다.

욱 저하되어 도·농간, 지역간 삶의 질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년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대를 초래하게 되고 그 재정 확보를 위한 생산인구층의 부담¹⁶⁾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노년인구와 유년인구, 생산인구층의 세대 간 정책적 가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밖에 정치 분야에서의 노년층의 영향력 행사, 여가 등의 문화 사회분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평생교육 니즈의 증대로 교육 수요층이 확대 되고 소비 주도계층의 변화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고령화시대 노년층이 겪게 될 사회변화는 전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노년준비는 탈 세대적 공존공생의 관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노년준비로 인한 삶의 영향은 부모, 자녀, 가족, 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상리상생¹⁷⁾의 관계이어야 한다. 편리공생¹⁸⁾의 관계이어서는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연적으로 개인의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차원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노년기의 삶에 대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의 개선을 요하는 한편, 공동체의 생태계의 한 축인 사회와 국가 역시 빠른 시일내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경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급속한 인구변동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2001년도에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2003년에는 대통령정책실에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발족, 2004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고령화대책을 수립,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부¹⁹⁾는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국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책 키워드로 개인이 스스로 100세 인생을 준비해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의 원칙, 남녀노소에 일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봉사과 교육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참여의 원칙, 세대 간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대 간 상생의 원칙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원칙들을 통해 정부는 국가정책의 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맞게끔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그동안 정부 언론매체 등을 포함한 사회·개인 모두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노년층의 ‘삶의 질적 수준의 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경제적 사전 준비’의 문제로 집중하여 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삶의 질과 관련된 흐름과 견주어 실제 일반 개인은 고령화 사회 노년층의 삶의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인생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통계자료²⁰⁾에 의하면 평균수명 연장이 축복인가에 대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 사는 현상을 축복이라는 의견은 28.7%, 그저 그렇다 28.0%, 축복이 아니라는 43.3%로, 오래 사는 것이 축

16)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 95

상리공생은 늘 함께 쌍을 이루는 종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18)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 95

공생 중에서 한 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에는 아무런 이익도 해도 없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 한다.

19)2011년 9월 기획재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713/38758921/1>

20)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2011, 99호

복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문제 빈곤 질병 소외·고독감등의 발생 때문이 30.6%,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4.1%로 나타났다. 통계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 측면에서 노년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2 사회통합적 삶의 질

고령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유지와 수입의 감소 및 단절로 인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재원조달이 그들에게 불안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지 문제에 당면하여 노후 재원에 대한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준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정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개인이 의식주의 기본 생활수단의 마련으로 비록 개인의 생존환경을 최적 환경조건으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자아의 확립과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생태체계에서 사람은 가치적 생존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생태체계내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역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인, 지역사회등과의 사회적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각 개인에 맞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미 살펴본 '인생 100세시대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통계자료 역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관계망 내지 가족, 지역사회, 국가 역시 개인과 더불어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노년기 삶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인간생태계 전체에 문제가 확산되어 공동체의 사회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개인이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니즈가 존재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윤리가 전제되는 가운데 공동체의 노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궁극적인 고령화시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안정적인 경제적 준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을 유지 하면서 통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조성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층의 삶의 문제 논의는 경제적 준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지양 되어야 함이 옳다. 노년의 삶의 만족도는 기본적 생활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 문제의 해결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체계 내의 삶의 총합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만족감과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갈등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통합에서 나오는 공감적 삶에서 노년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령자 스스로가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장기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질적 준비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제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도 함께 고려되는 틀이어야 한다. 고령사회의 준비의 주체는 노년층을 맞이하는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고령자의 사회로부터의 분리 방지를 위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하나로 '세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이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 기업, NGO 또는 NPO등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고령자의 생활을 함께 인식하고 노년기의 특징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노년기의 특성

을 인정할 때, 노년기가 청·장년기와 다름을 수용할 때 노년층의 안정을 위한 비노년층의 적극적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 설정되는 노년기 삶의 질은 온전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노년층의 삶과 직결되는 제반 주요 준비요소는 시간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경제적 준비나 건강·노년기의 직업 등은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 노년기에 당면하여 즉시적 대처일 때 보다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사전 준비할 때 선택의 폭과 경제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한다. 시간요소의 전략적 사용이 중대한 삶의 질적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문제 중심의 제한적 접근에서 벗어나 노년기 문제의 핵심 대처의 하나로써 시간요소도 함께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노년기 삶의 질의 문제는 개인, 사회, 국가 각 개별요소만의 문제가 아님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등 총체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적 준비와 현재에 골몰한 기존의 제한적 분야에의 접근은 삶의 질의 문제를 개별화 시킬 우려가 있었다. 전체적 접근이 아닌 사후 평가적, 분석적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사전 예방적요소를 간과하고 노년 준비의 시간과 노년기 모두가 장기간이라는 시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노년기 준비에 대한 인식은 막연함을 주었던 것이 일정부분 사실이다.

앞으로 맞게 될 노년기의 삶의 패턴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과 자급자족의 체계가 가능했던 농경사회 및 후진국 사회에서는 고령화는 축복일 수 있었다. 욕구의 크기, 욕구의 충족도 적당히 조절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경쟁과 산업사회의 물결 속에 인생100세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다양한 욕구를 갖게 만든다. 정보화 사회, 탈 합리적 개성 추구의 시대는 연장된 노년기를 맞이하는 신노년층들에게 개인의 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의 전체적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도 될 것이다.

개인은 혼자일때와 더불어 공동체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행복으로 인한 삶의 풍성함은 개인이 공동체와 적당한 크기의 조화를 이룰 때 더 커진다. 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체계가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물론 매사가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 이전의 생태체계에서도 노년기의 생태체계에서도 개인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을 수 있고 갖게 되기도 한다. 그 기능은 단순히 적응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자로서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생태학적 지위²¹⁾에서의 명확한 의미부여와 자리형성은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질의 크기를 높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의 논의를 심화시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문제의 하나로써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요소를 파악 하고자 한다. 경제적 준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의 관련 요소의 현실적·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년에 대한 접근의 큰 틀을 구축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보다 더 sein 과 sollen의 현실적 합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21)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111

모든 환경요인에 대해 한 집단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관계(위치)를 생태학적 지위라 한다. 따라서 직업뿐 만아니라 사는 장소, 직장의 위치, 직장에서의 직급 등을 모두 포함한 특별한 속성을 규정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것이 생태학적 지위라 할 수 있다.

III. 노년기 자본으로서의 시간

3.1 노년의 준비와 시간 자본

성인기의 의미있는 성취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어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자본의 위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존재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년을 안정감 있게 보내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는 엄청난 사업의 성공자만이 아니다. 재무설계를 통해 생애 준비를 작은 금액으로도, 자투리 시간이라도 꾸준히 전략적으로 집중과 반복으로 묵묵히 실행한 사람들이다. 누구나 단 한 번의 결심과 성취로 노년이 완성되지 않는다. 노년의 생애 준비 요소는 전생애적 속성과 다양한 사회적 관련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자기 집중이 필요 하다. 노년기 생애 준비는 단순하게 한번 마음먹은 만큼 이루어질 만큼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 요소는 이용자의 사용에 따라 자본이 되기도 하고 기회요소가 되기도 한다. 희망의 여유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부여 받은 시간자본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틀짜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년준비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시간을 `자본`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의미중심의 틀과 실천중심의 틀의 실현은 단계적 시간의 투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노년준비는 시간자본과 쌍을 이루어 한 가지씩 채워 가야 한다.

미국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영학자 중 하나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식노동자들의 경우, 과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힌바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예비노년층에게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노년준비`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삶의 핵심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과업달성에 있어 노령층의 삶의 질과 시간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고찰해 보자.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택하기 마련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사는 것이 당장은 편하겠지만 노년기 삶을 대비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자신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려면 스스로 생활에서 시간 자본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진행 시켜야 한다. 인간의 생태주기상 노년 준비의 기간도, 노년기의 시간도 시간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자본이 될 수 있는가? 흔히들 시간 관리를 성공적인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요소로 강조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 될 때 시간이 노령층의 삶의 핵심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먼저 시간은 한번 주어지면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나쳐 버리면 사라지는 속성상 노년기의 삶과 관련된 요소에서도 `시간 관리`는 `시간의 사용`의 문제로 귀결 된다.바람직한 노년기의 삶이 되기 위한 시간이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의 상황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한 중심에 서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시간과 정보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정보화시대는 시간과 정보에 대응한 보상을 위한 기회가 농경시대, 산업시대보다 훨씬 더 많고 크다. 노년기를 위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준비의 기회를 알아내고 노년기 삶의 질로 연결할 수가 있다. 노년기 정보와 관련된 핵심은 `법규` 및 `시간`에 관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쉽게도 노년기의 삶의 문제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의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 문제로 국한하거나 누가 부양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준비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전체적 시간조망 없이 개별 전문영역별 대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노년기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다면, 윤택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자유를 갖는 노년을 희망 한다면 시간자본 이해와 활용의 가치의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시간자본이란 시간이 그 운용방법에 따라서는 토지, 노동력, 자본과 같이 한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돈이나 노력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인 경제재와 달리, 시간은 재화는 아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유재이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사용에 따라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생산재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물건인 재화에 반해서 시간은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그 쓰임에 따라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시간은 일반 재화와 달리 취득에 있어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정교한 계획과 노력을 들인 것 만큼 비례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문제는 토지, 자본, 노동력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서 노년기 경제문제는 이에 더하여 `시간자본`이 추가되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창출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애주기별 사건에 따라 분배 하고, 언제부터 소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시간배분과 수반하여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통적 경제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는 점에서 노년기 경제문제도 그 범주내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노년기 준비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시간 사용과, 한정된 자원의 범주내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물적 배분에 관련한 구체성을 갖는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든지 생산하여 무한정 욕망의 충족이 가능하므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를 어떻게 하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²²⁾ 그런데 일반 재화와 달리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희소성이 일반적인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없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시간자본은 그 사용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발생 한다.그 시간의 구체적 활용에 따른 희소성이 삶의 질의 개인차를 발생하게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시간 사용이 어떻게 재화로 작용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3.2 시간과 규모의 경제효과

연구결과²³⁾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때문이 65.4%이며 생활비로 인한 여력이 없어서가 20.1%,주택관련 자금 5.7%로서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비은퇴자는 자녀의 교육이 본인의 은퇴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22) 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2 p.5

23)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10년5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 현황 및 시사점
조사대상자는 1955년생~1963년생 남녀 500명.

생각하는 응답이 66%로서 은퇴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 34%의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자녀에 대한 투자를 은퇴준비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렇듯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은퇴문제의 곤란성을 이야기 할 때 돈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한 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서도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동일한 금액을 어떻게 시간자본과 연계하여 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단리와 복리의 운용의 차이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 준비의 크기는 달라진다. 단순히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복리는 그 속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자본으로 작용할 때 그 잠재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노년준비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장기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젊었을 때 빠른 시작을 요한다.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서만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노년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준비량의 절대적 결정요소는 미리 준비하는 금액의 크기만이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표1>에서와 같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장기 시간은 노후준비의 핵심요소다. 작용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부담하는 크기의 효과, 준비로 얻게 되는 효과, 심리적 효과를 달리한다.

<표 1> 시간과 복리효과

월 100만원 적립	5년시점	10년시점	20년시점	30년시점
5% 단리일때	67,625,000	150,250,000	360,500,000	630,750,000
5% (년)복리일때	67,813,738	154,363,161	405,804,485	815,375,907
차이	188,738	4,113,161	45,304,485	184,625,907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20년,30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은 `또 다른 노후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심리적 안정감의 부여로 삶의 질적 차이를 발생 한다.단순히 얼마나 많은 저축을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표1>와 같은 이러한 시간의 자본형성 기능을 고려하면 준비하는 동안의 삶도 함께 여유로워질 수 있다.

3.3 시간자본의 상대성

우리는 흔히 가계자산의 운용을 즉시적 현재의지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처하기 편리하다는 것과 각 가정의 재무적·비재무적 목표 설정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재무설계 없이 자산운용을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 가계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간은 노년기를 위한 자산형성에도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 3대 생산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이 그 소유나 획득 방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상대자본인 것과 달리 시간자본은 인격적 존재로 사회에서 정상생활을 영위하는 한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 받는 절대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자본은 사용의 효과까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시간자본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는 법과 제도의 활용에 따라 그 효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시

간의 통합적 활용여부에 따라 경제적 준비 결과의 현격한 차이를 발생케 하고 그로 인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영향요소의 하나로 작용 한다.

<표 2> 시간의 통합적 활용 효과

월100만원 년5%,단리 적립	5년 시점	10년 시점	20년 시점	30년 시점
원금	60,000,000	120,000,000	240,000,000	360,000,000
일반과세 후 수령금액	66,450,750	145,591,500	341,943,000	589,054,500
과세액 ²⁴⁾	1,174,250	4,658,500	18,557,000	41,695,500
비과세 수령액 ²⁵⁾	67,625,000	150,250,000	360,500,000	630,750,000

<표2>에서 보면 생애주기에서 한 개인이 공동체사회에서 또 다른 가족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보통 30세 전후에 시작되고 그 이후 다양한 재무목표를 수립하며 살아간다. 일례로 노후자금의 경우 2~30년이후의 은퇴자금을 목표로 자산운용을 할 때도 시간의 자본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시간의 통합적 운용이 아닌 5년 단위의 분절적 자산을 반복해서 운용한다면 일정기간 이하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법령에 의거 볼 수 없다. <표2>에서는 30년을 기준 한다면 시간의 통합적 운용에 따라 비과세 적용된 약 4,100만원은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적 여유 자원을 갖게 한다. 당면한 현재의 지 문제로 꼭 짜여진 경제적 환경하에서 노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이다. 한정된 크기의 저축량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분절적 저축활동도 노년기 준비자산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일한 금액, 동일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노년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3.4 시간자본의 현실적 활용

우리는 시간에 대한 자본적 속성을 잘 부여하지 않는다.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노력없이 댓가없이 매일 부여되기에 회소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은 그 가치를 달리 한다. 시간은 현실인식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을 제공 한다.

<표 3> 시간자본과 실현 가능성

만기60세,목적자금5억, 년복리 5% 적용	20세 시작	30세 시작	40세 시작	50세 시작
월 불입액	337,262	613,214	1,232,120	3,239,114

24) 현행 15.4% 과세체계

25)2011년 기준 상품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되는 상품이 있다.

<표3>에서 보듯이 동일한 목적자금을 준비하더라도 시작시점에 따라 그 부담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시간자본이 주는 복리효과는 시간의 대체불가능성²⁶⁾을 입증 한다. 또한 시간은 목표에 대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좌우 한다.목적자금 5억을 목표로 20세에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연령증가에 상관없이 약33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50세가 될 때까지 매월 계속 적립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의지 문제가 급부상하는 40~50대가 되더라도 매월 불입하는 금액 33만원은 당면 문제에 의한 큰 영향을 받음 없이 노후준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세에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 할 때의 금액 약 123만원 자체도 20~30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40대 이후는 미래 노년기의 문제보다는 당면한 자녀의 대학교육을 전후한 교육비 부담과 경쟁하여 노후의 문제는 축소된 실행이거나 실행곤란의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준비의 실행에 있어서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효과는 단순히 준비해야 되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미치는 절대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간자본은 전통적 생산수단과 달리 노년준비문제에 있어서는 차입이 불가능한 절대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단순히 개인의 노년준비의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과 그 운용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가 주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3.5 시간자본과 노후직업

은퇴이후 ‘일’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유지 이상의 일의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한다. 일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회적인 역할과 봉사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보람과 생의 보람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노년기에 자기 체력과 능력에 맞는 ‘자기일’을 갖는 것이 최고의 노년기 모델이라 할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조사결과²⁷⁾’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가의 질문에 남자는 85.4%, 여자는73.4%, 전체응답자의 79.4%가 60세 이후 노년기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노후 근로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0세이후 희망하는 근로유형에 관하여 ‘이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39.1%, ‘이전에 못해 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 30.0%, ‘이전일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일’ 28.3%로 노후에는 이전에 하던 익숙한 일을 더 선호하고 연령이 적을수록 ‘이전에 못해 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왔다.노년기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간과 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다. 특히 제2의 직업 준비를 위한 시간 운용에 있어서 통합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은퇴기간의 취업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마련된 시간은 최대한 통합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때 시간자본이 에너지로서의 효용이 극대화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시대 적합성을 갖는 브릿지잡의 개발과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진정으로 ‘일’을 통한 활력을 지닌 삶을 원한다면 은퇴이전에 통용 되던 경쟁력 있는 업종에

26) 한번 경과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다른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시간자본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은퇴전에는 오직 경제적 준비의 크기를 늘리거나,노후 당면 생활에서 생활비의 크기를 줄이거나,은퇴이후에도 계속 소득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법등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27) 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시대 대응 국민인식조사결과, 2011,8월 보건복지 제99호

안주하기 보다는, 5~10년 후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업종을 미리 배우고 익힘에 장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이를수록 미리 투입된 시간 자본이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작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날로 치열해 지는 산업사회, 초경쟁사회에서 맞닥뜨린 노년기의 구직이 마음 먹은대로 어느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개인이 선호하는 일은 장기적 준비와 숙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과 취업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제도적 대응책이 요구 된다.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겸하며 즐길 수 있는 취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연령 통합적 접근과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본인이 좋아하며, 미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성이 인생의 묘미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성을 노년에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체력이라는 절대요소가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 하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을 때보다 반복해서 집중 할 수 있을 때, 타인과 차이를 가질 만큼의 전문성이 확보될 때 실제 만족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6 시간이 주는 자유에너지

노년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문제, 취업의 문제, 사회관계적 문제의 해결 그 어느 것 하나 시간자본의 장기적 속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해결에 이르는 대안도 시간요소가 생애주기와 함께 고려 되어야 하고 그 주기에 맞춰 내용이 구성되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노령층의 기초자산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돈이나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의 기회비용 증대효과`에 대해서는 심각성의 인식은 미미하다. 노년기를 대비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시간테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자본이 중요해지는 사회일수록 시간을 자본으로, 에너지의 원천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노년기의 삶의 질이 풍성해 진다. 과학이론의 `자유에너지론`에 의하면 A라는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에너지는 모두 300이고, B는 500일 경우에 A는 자신을 유지하는 데 200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자유에너지 100을 갖고 있고, B는 자신의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450의 에너지를 소모하여 B의 자유에너지는 50인 상황에서 A와 B중 누가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가졌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남은 자유에너지만을 놓고 판단한다. 비록 A가 외형은 작지만 자유에너지는 B보다 50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A가 B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이를 노년기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나의 전체 에너지, 은퇴이전의 축적자산이 얼마인가 보다는 사용하고 남은 자유에너지, 준비한 노후자산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 경제적 활동기의 축적된 에너지는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 이벤트로 인해 소진되고 그중의 일부가 노년기에 사용된다. 나의 노년기와 직결되는 삶의 질은 왕성한 활동기에 축적된 전체에너지보다는 노후를 위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진 나의 전략적, 계획적, 경제적 선택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자유에너지에 의해 좌우된다. 노년기 준비에서 시간은 성취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다. 크게 변화 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자본

28) 원동연,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2000, 김영사 p.188

은 그 사용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과 관련한 노년기의 삶의 질은 시간의 사용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타인의 전체 에너지가 큰 것에 집중하고 나 또한 성취하고자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 가운데 `자유함`과 `여유`를 빼앗기게 된다. 보다 더 가치 있는 `나의 일`을 하기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간자본의 활용을 통해 나의 자유에너지를 증대 시켜야 한다.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삶을 질서화 한 사람들은 자유에너지를 확장 시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훨씬 더 여유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와 관련한 시간자본의 관리 목표는 현재의 많은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한 시간에너지 사용을 포함 한다.

현재는 이미 있었던 일들의 `결과`로 둘러싸여 진행 된다.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일들은 예측 가능했고 실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게 된다. 현재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은 본인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 다시 갈수 있다면 미리 계획하고 행동 하며 재무적·비재무적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또한 노년기 미래에 대한 인식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루게 된다. 노년준비 실행 연기의 그 바탕은 아직 당장의 일이 아닌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는 것과 현재의 지 문제로 둘러싸인 현실적인 `경제적 곤란`이다.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질서 정연하게 보인다²⁹⁾.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뒤돌아서 바라볼 때 질서 정연하고 문제가 바로 보일 뿐 과거의 재료였던 당면 상황인 현재는 늘 현재의지 문제로 혼돈의 일상이다. 노후 준비문제 역시 늘 현재는 현재의지 문제로 휩싸인 채 혼돈의 연속이다. 현재문제로 둘러 쌓인 채 맞이하는 노년기는 질서정연해야 할 노년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똑같이 은퇴문제, 노년기의 문제도 현재의지에 둘러싸인 일상 범주 내의 현재문제다. 여러 가지 현재의지 문제 앞에서는 먼 미래가 보일 수 없다. 노년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는 잠재적 준비육구 상황에서는 `시간`은 자본이 될 수 없고 에너지로 기능하지 못한다. 시작되지 않은 준비는 여전히 현재의 혼돈을 낳을 뿐 질서를 갖지 못한다. 사용 되지 않은 시간은 그저 단순한 소비재 이하일 뿐이다. 미래의 질서 정연한 노년은 현재와 미래를 지금 함께 바라볼 때 시작 된다. 이미 다 소진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자본에너지`와 당장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한 `현재의지`로만 둘러싸인 채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현재는 더 이상 질서 정연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몸짓, 지속적 실행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추구하는 습관도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중의 하나다. 불타는 의지와 실행이 존재하는 현재가 미래의 관점에서 질서 정연한 과거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무상자본적 속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절대무상자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시간은 그것이 다 소모된 이후에야 우리에게 시간의 자본가치의 비중을 부여 한다.

IV. 나로부터 시작되는 노년준비와 삶

4.1 내가 설정 하는 노년기 삶의 질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의료비, 심지어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적 기준의 프레임은 개인을 압박 한다. 내가 스스로 가져야 할 압박은 세상의 다양한 매체의 현실적 압박으로 사라진다. 세상의 틀은 내게 맞는 적정성의 의문의 시간을 없게 하고 내가 주

29)최인철,프레임,21세기북스,2011,p19

체로 기능하지 못한다. 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노년기 삶의 질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기준, 획일적 잣대에 의한 기성품이 아니라 내게 꼭 맞는 맞춤형 프레임은 준비의 기쁨을 알게 한다. 개별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내가 맞춰 가는 가운데 헤르만 헤세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임을 느낄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노년기의 삶의 질 고려는 노년기에 대한 의미부여로 시작 되어야 한다. 단순히 노년기의 준비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나의 노력에 따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면 되는지, 목표대로 해 간다면 성공적인 노후가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물음은 노년기 삶의 질의 인식을, 공감을 어렵게 한다. 노년기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주변머리의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만다. 따라서 노년의 풍성함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대한 생의 소중함이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또 하나의 보람이 되어야 한다. 먼 미래의 장기적 접근 없이 당장의 현실에 골몰하게 되면 빈 둥지시기에 빈 마음마저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노년기의 준비는 나의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 틀 안에서 재무적·비재무적 활동이어야 한다.

내가 처한 사회경제상황, 가계재무상황, 시간자원에너지상황 등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수준과 나의 존재감을 갖게 하는 삶의 의미수준의 틀은 나만이 구성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비록 과도한 교육비, 주거마련의 과중한 부담 등 특수한 한국적 상황의 현재의지 문제로 온전한 자유선택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삶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에 따르는 자기관리의 틀에 따라, 노년기의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노년기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정립과 바람직한 모습의 틀의 설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다. 나의 노년기의 뚜렷한 삶의 태도요소를 확보하고 있는가? 자녀와 나의 삶의 가치형량은 인식되어 있는가? 현재의지문제 대처에 적절한 크기의 야성적 충동³⁰⁾의 발현 범주는 설정되어 있는가? 경제적 ‘부의 이전’만이 자녀의 세상 터 잡기에 유용한 것인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가치중심’, ‘의미중심’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거액의 재산 못지않게, 험한 세상 거뜨히 이겨내는 훌륭한 지혜의 원천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실천 할 수 없는 것일까?

특정 목표 중심의 노년기의 준비, 특히 경제적 준비에 집착하는 노년기 준비는 그 과정에 이르는 삶의 질을 메마르게 한다.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경제적 조건의 환경은 의미중심의 삶의 질 추구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을 담지 못한다. 노년기 삶의 질적 요소를 단순히 경제적 준비, 의료문제 등 일부 요소에 국한하여 방법적인 하위수준의 문제와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노년기가 왜 의미 있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지, 노년기가 가져야 할 비전과 이상을 망각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4.2 노년준비의 주체로서의 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른없는 평범함이지만 지금 현재와 엮여 있는 곧 임박 할 노년기는 내게 강렬함과 급박함을 주게 된다. 미래의 ‘나, 노년기의 나는 오늘과 같은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필요들을 자녀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시대상황이다.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³¹⁾

30)Keynes,J.M.(1936),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ing and Money, pp.161~162.

도덕적이든, 쾌락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 대부분이 수학적 기대치보다는 충동적 낙관주의에 의존하여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경제가 낙관이나 비관의 물결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요약 했다.(김선빈 외, 긍정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9, p25)

31)보건복지가족부, 2009년6월, 2008년 노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노인의 약 70%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는 ‘노부모와 자녀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1.9%로 조사됐다. 통계청 발표 자료³²⁾에 따르면 한국 노인 4명 중 1명(25.1%)은 노후를 자녀 부양에 의존하고 있지만 5년 전 약 36%보다 11%가 감소하여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세상이 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임의적 착각이다. 내가 주체로서 사회체계의 일부가 되어 함께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개인은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서 사회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인 노인 부양의식을 형성하였다고 바라본다면,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만 변한 것은 아니다. 노년기 삶의 문제를 정립하였다면 변화의 주체로서 ‘나’의 리프레이밍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의 변화는 준비과정에서의 보람들을 스스로 창출 하고, 준비의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시간과 세상의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나의 대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노년기 풍요한 삶의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핵심 성분은 바로 ‘나’다. 우리가 지칭하는 ‘노년층’도 청·장년기에는 자신들을 ‘노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노년층은 과거 능력 있는 청년기를 가졌다. 그 청년층 역시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사건들로 가려진 채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노년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노년층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필요하고 열등하게 보이지만, 노년층은 청년기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려 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년을 맞이한다는 점이 노년기에 이르는 현실적 특성이다. 또한 우리가 ‘청·장년기’라고 부르는 중간시기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결집체로서의 ‘노년기’를 깊이 인식하지 않는다. 노년기에 대한 큰 지각없이 살아간다. 더구나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간접적 당사자로 본인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일정시기에 이르러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자녀는 부모의 노년의 삶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을 현실적으로 갖기 어렵다. 부모는 ‘나’가 아니기 때문이며, 사람은 또 다른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³³⁾인 이기적 주의를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대한 현실적 부양문제가 나에게 제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년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런데 누구나 지금의 청년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과거로 규정되거나 혹은 장년기, 노년기로 이름 지어진다. 어쩌면 나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는 ‘암흑기’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또 다른 미래의 후손들도 그들의 ‘현재’ 시점에서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년기의 대한 인식과 주기를 갖게 될 것이다. 노년기의 삶에 대한 평가도 동일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년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나의 문제에 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노년기인 현재의 시각으로 부모를 평가하고 과거를 평가한다. 자식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등 현재의지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노년기의 안전벨트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지만 자녀 본인의 현재의 삶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다양한 현재의지 문제에 직면하여 본인의 에어백을 부모에게 선뜻 내줄 수 없는 것이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629220041&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30

32)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고령자와 여성 부문 조사, 2011년10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0131431374100

33)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2000, p.139-140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한 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입장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녀는 지금 그 당시 부모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의 당면한 현재의지 문제 앞에 부모를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노년기의 준비 문제를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겨 두거나, 자녀가 대신 준비하거나 미뤄둘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여거기에 있다.

4.3 나와 다른 생태체계와의 인식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타인의 일을 상상하고 상대의 입장에 처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에 관한 대인관계 기술서들은 공감, 이해, 경청 등을 강조하며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 자기관리와 장기간의 집중된 훈련을 강조 한다. 이렇듯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잠깐 동안은 생각해 보고 타인의 상황과 정서를 이해하려 시도는 해 보지만 장기적 유지는 어렵다. 노후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심과 주의의 속성들이 예외 없이 적용 된다. 자녀입장에서 부모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노년에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과 정서적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리학의 자기준거효과(self-reference)³⁴⁾는 부모의 노후문제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다. 인간은 속성상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때도 많은 요소를 빠뜨리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더욱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속성상 그 대상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부모들의 노년기 현실적 필요에 대한 요청에 깊은 주의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에 대한 준비는 ‘각자의 몫’이라는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특성에 기초하여 노년기를 대비한 노후설계를 마련 실천하여야 하고, 자녀들 지인들에 대한 이해의 틀이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공감적 이해의 틀이 선형적으로 마련될 때 우리는 부모-자식, 부모-사회적관계망 등에서 오는 노후의 삶의 관계성이 보다 원만해 지고,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보다 더 풍요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노년기에는 당면한 노년기의 물리적 경제적 조건들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노년기에 당면하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괴리감도 행복감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본인의 주관과 불일치한 사회 현상과의 직면 상황에서 작동하게 되는 개인의 면역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사회적 존재감은 더욱 달리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한다. 이는 노년기에 이르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상호간의 차이에서 느끼는 격세지감도 그런 부류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인정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생기게 되는 부조화의 결과일 뿐이다. 현상인식의 편차는, 세대 간의 인식의 다름은 각 개인이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데서 비롯되는 현상이지 현재를 살고 있는 청·장년층에게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격한 시각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의 청·장년층을 노년층의 청·장년기의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노년층의 현재의 시각으로 청·장년층을 이해하려 드는 오류에 그 원인이 있다. 나의 기준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타인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자세는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 한다. 심지어 10년 전 유행했던 멋진 복장의 나

34)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1999, p.85-86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더 쉽게 처리되고 기억되는 경향성, 사회적인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한다.

의 사진마저 지금 다시 보면 어색함과 민망함을 주는 것은, 현재가 과거를 통치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모습을 이해하고 평 할 수 없듯이, 현재의 예비 노년층은 역시 미래의 청·장년들과 차이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식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년기에 당면한 사회체제와 조화로운 관계로 삶의 질이 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적 변화에도 개방된 자세와 배움의 기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존립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와 구별되는 ‘다름’은 낯설음을 주게 되고 나와 조화되기 어려운 ‘차이’는 관계 형성의 불편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의 극복기제는 사회면역체계의 보유다. 생물학적 면역체계가 중요하듯 노년기에 적절한 심리적 면역체계를 사전에 마음 밭에 가꾸 놓아야 한다. 노년기는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특성상 작은 부조화도 크나큰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다. 노년기에 이르기 이전에 다양한 인간체제에 대한 생애 주기별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일상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 면역체계가 활발히 작동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줄 것이다.³⁵⁾ 지식, 교육 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된 바 없고 예측된 바 없는 이해체제에서는, 면역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되고 당면 사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노년세대는 동일 사실에 대해 청·장년기에 무난히 간과할 수 있었던 사안도 과다하게 해석하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으로서 주변인과의 관계곤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더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노년기의 문제는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장기지속적인 생애주기 단계별 이해교육의 문제이며, 지속성을 요구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그 내용은 노년기 경제적 소득창출 도구를 위한 주제 또는 소일을 위한 여가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는 전인적 교육이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노년의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의 시작은 특정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준비의 결정기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노년기 삶의 질의 문제가 갖는 전인격적 성격상 그 준비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전생애 걸쳐 이뤄져야 한다. 노년기는 각 생애주기와 단절된 삶의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연결체로서의 삶의 ‘일련의 특정시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애주기별 해당 주기의 특정 사건들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의 노년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노년기의 문제는 특정시기 단기간 내에 시작되어 해결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노년기 이전에 실시된 노년에 대한 인식과 준비교육은, 자녀가 부모세대의 노년준비에 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 한다. 또한 교육은 지금 미래의 눈으로 자녀를 자신의 노년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본인의 노년기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하게 하여 노년기는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적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듯 노년기는 주체적 준비의 대한 인식의 틀을 갖게 하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노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나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의 입장이 함께 고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준비로 모든 노후준비가 완성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함은 늘 임박한 당면한 현재의지 문제 앞에서는 노후문제는 나의 현실이 될 수 없고 노후준비는 요원할 뿐이다.

35)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 p.126

4.4 노년준비에 대한 되묻기

내가 갖게 되는 노년기는 아득한 먼 훗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엮어진 채로 함께 진행 된다. 노년기 준비는 지금과 분리되지 않는다. 노년기의 삶 역시 지금 현재의 삶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삶이 아니다. 먼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일방적 희생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촉박함을 조장한다. 생활의 척박함을 가중하고 가치적 혼란을 조장한다. 그러는 가운데 직장생활은 현재의지 문제 해결에 심신이 집중되고 현재의 작은 ‘감사꺼리’조차도 내일을 위해 연기 한다. 부모는 가정에서도 자녀의 ‘성실한 생활모습’에 감사하기 보다는 ‘우수한 성적’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칭찬을 분산하고 연기하며, 자녀는 부담이 쌓여간다. 자녀는 대학과 직장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목표와 경쟁속의 승리자를 목표로, 부모와 자식은 현재 누려야 할 기쁨을 끝없이 연기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인내하고, 자녀는 대학을 목표로 참고 이겨내며, 대학생활은 직장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자녀교육과 노후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희생적 세대전이의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포기되고, 대를 이은 노년준비 희생의 순환 고리의 끝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과 느낌’이 없게 되고, 노년의 행복감은 제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노후의 삶의 질은 현재의 삶과 전혀 유리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에 정서적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삶은 미래에도 삶이 풍요로울 수가 없다. 감사함과 풍요의 경험 없는 삶은 노년기의 자신이나 가족, 친구, 전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적 격려 칭찬과 기쁨을 낮설게 한다. 따라서 노년기 준비는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 격려, 조화로써 어우러진 현재의 시각으로 일상을 적극적으로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일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괴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 준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노년에 대한 인식과 계획은 뚜렷하지만 번번이 그 실행이 좌절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의 ‘상위수준의 의미’ 있는 생각들을 실천단계에서 ‘현재의지문제’인 하위수준으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문제의 계획과 실행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노년기의 삶의 문제의 성격은 전인격성, 시간자본에너지성, 삶의 반복 불가능성, 사회생태체계에의 영향 변인 등의 특성상 그러한 시행착오를 평균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반복하게 되면 노년기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노년기 삶의 대한 계획과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기 삶의 대한 의미 인식은 상위 수준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실천에 있어서는 하위수준의 구체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년기의 삶을 개인적 여건에 맞춰 의미 있는 삶을 설정한 후, 일상에서 한 가지 한가지의 일들이 미래의 삶을 위한 것들로서 의미 중심의 틀을 형성하게 되면 삶의 중심과 목표를 갖게 되어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엮어갈 수 있다. 또한 실천에 있어서는 ‘10년 후, 20년 후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삶을 원하는가’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구체화 시키는 노력으로 즉시적 실천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의 관하여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늑한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 살면서 적당한 소일거리와 가족들과 1년에 한 두 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의 틀을 축소하며 마감 한다. 10~20년 후의 먼 미래에 대해서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는 경향성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보편적 성향일 것이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과 관련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특성들이 감안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사회, 국가가 총체적으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4.5 삶의 질 추구 방법의 문제

은퇴계획 실천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자녀교육비나 주택마련 등에서 오는 극히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년 계획 실행에 지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비, 대출상환 등 현재의지에 의해 미래의지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지에 집착, 집중한 상황에서 미래의 은퇴계획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게 되면 노년기에 대한 관심은 먼 훗날의 일로 인식된다. 잠재적 현재의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지를 더 중시하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로 불타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과거의 중도 포기했던 경험과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강한 자기 확신 등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결과는 노년준비는 현재의지 문제에 늘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런데 현재의지문제 해결이 미래의 노년기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실망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의지문제 해결은 미래 노년의 삶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의지 문제 해결로부터 나의 노후마저 해결 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훗날 실망감을 맛보지 않고, 노년기의 텅 빈 빈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지 문제와 미래의지 문제의 객관적 구별이 필요하다. 목적별 자산 준비와 운용의 엄정한 구별이후 나의 미래 노년기의 문제를 지금 현재의지의 문제로 인식의 틀을 바꾸고, 나의 긴급한 현재의지의 문제들과 동류로 함께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로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 안만 보일뿐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지 문제에 직면한 노년기 준비 문제는 터널효과³⁶⁾를 늘 유발 한다. 노년기의 삶의 질 고양의 지체요소, 장애요소인 현재의 당면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닥치는 반복된 터널이다. 미래 노년기 문제도 곧 우리가 즉시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재의지 문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터널 밖의 세상도 함께 예측하며 달리지 않으면 터널을 벗어남과 동시에 현재의지 문제와 충돌이 불가피함을 직시하는 노후준비여야 한다. 생애주기에서 각 시기별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이슈가 발생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자녀교육에 집중하고 주택구입 등 현재의지 문제에 과도한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은퇴준비 프레임을 고려할 때 교육비나 주거관련 비중을 생애주기의 특정 이벤트의 하나로 인식의 틀을 전환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재설정 한다면 우리의 삶이 척박하지 않고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갖게 된다. 이름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의미 관련성을 갖게 된다. 노년기 준비에 있어서도 `의미` 부여는 그 취지에 따라 그 역할과 집중도가 달라진다. 오락용 주머니, 주택마련용 주머니, 노후용 주머니, 자녀결혼자금용 주머니 등 그 목적에 따라 붙여진 이름의 돈은 다르게 쓰게 된다. 시간 역시 동일한 시간자본을 삶의 에너지로 이용하더라도 단순한 여가가 아닌 `노년을 위한 가치 있는 준비시간` 등으로 명명하면 현재의 시간사용에 대해 가치 인식을 하게 되고 더 치밀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매월 주기적으로 불입하게 되는 은퇴자금을 위한 소수의 금액도, 일상에서의 작은 자투리 시간도 이름을 붙이면 `의미 있는 준비` 인식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완결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노년기 준비는 스스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의미 지움과 그 과정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을 때 목표에 도달할 확

36)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 p.120

자동차를 타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 안만 보이고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다, 터널비전 현상과 같은 원리다. 본 저자는 터널 내에 진입하면 터널내부의 환경에 집중하여 터널 밖의 환경에 주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효과로 이해하고 표기 한다.

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교육은 쉽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속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의지 문제에 당면한 노년에 대한 시각은 삶의 한시기의 생활의 일부쯤으로 여겨질 뿐이다. 교육 경로를 통하여 또는 스스로 노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경제적으로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30년~40년에 걸친 평생의 본인문제’ 라는 장기적 시각의 틀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노령층의 삶의 질의 문제는 노년준비의 결과가 아니라 방법론적 고찰의 문제가 정책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행복의 정점은 노후준비 완료시가 아니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의 실행의 문제와 현재의지의 문제가 맞닥뜨리면 ‘중립적인 배분 문제’ 로 상황을 구성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부분 은퇴준비를 자녀교육비, 주택상환자금 등 산적한 현재 의지의 문제들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지출을 실행 하며 노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유지 방식은 무엇을 바꾸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상, 의식 속에 존재하는 노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회피 하고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인 것 등 노년 준비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대안을 ‘중립적인 배분 문제’ 로 객관화 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결정된 지출’ 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 배분 결정’ 의 문제로 재인식해 보면 노년기 삶을 위한 배분에 있어 많은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수많은 현재의지의 문제들과 미래 잠재의지의 문제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지간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배분에 대한 결정과 실천은 철저히 우리 자신이 냉철하게 선택해야 할 몫이다. 이전 세대와 다르게 현시대의 노년기 삶은 그 태도에 있어 선택적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준비’ 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준비의 틀에 대한 전환은 나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누구나 노년기 삶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 한다. 그럼에도 노년기 삶의 준비에 있어서 태도와 실천사이의 괴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재의지 문제 중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높은 교육열이 그 은퇴준비 실천의 장애요소로 작용 한다. 전국 베이비붐 세대 4,674명의 패널 조사 결과³⁷⁾,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자금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 교육과 결혼자금(48.4%), 당장의 생활비(33%)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국의 노후준비 최대 장애요인은 자녀교육비다. 이는 학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 된다. 학벌위주의 채용방법이 잠재능력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상, 본인의 노령층의 삶의 질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준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은 각자의 소질과 재능이 발휘 될 수 있는 교육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채용 풍토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 개발 국가시대에 일정 학력 이상자가 극대우를 받던 비합리적 관행을 타파하고, 개방된 평가체제 하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하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기존의 학벌 인식의 틀의 대한 합리성의 의문을 갖을 때 발전적 변화는 시작 된다. 한다. 자녀 교육 중심적 틀, 내 집 마련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적어도 그 창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똑 같은 선택 상황에서 노령층의 삶의 질 제고는 그 방법에 따라 질을 달리 도출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각 생애주기별 일정량의 ‘의무적 준비교육’ 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준비자가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년기의 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

37)조선일보 기사, 2010년 12월 10일 http://tgrcc.snu.ac.kr/bbs/board.php?bo_table=retire_sub2_5&wr_id=85

나 본인이 원할 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준비교육’은 노년에 대한 인식과 그 이행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선택적 준비교육 정책을 취하게 되면 아무리 노년기의 삶의 중요성과 그에 따르는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제도로서의 인식과 의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적 준비교육 정책을 제도로서 실시하게 되면 캠페인과 교육을 보다 많이 실시하지 않아도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의무감’으로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스스로 임하게 될 것이다. 작은 변화에도 번거롭고 낯설면 쉽게 저버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하물며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의 일’ 쫓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노년의 삶의 질의 문제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과제로 인식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의무감으로 받게 되는 교육 내용의 질과 방법이 규범적, 현실적 적용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와 같은 생애전환기에 따라, 일정 주기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을 달리하되 체계적 양이 고려되는 전문화된 노후설계 프로그램의 교육과 적용은, 노년기의 대한 인식과 개인 자본과 시간 에너지자본의 최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는 20~30년, 많게는 40년 이상의 삶에 관한 강렬한 영향을 주는 교육내용이라면 예비 은퇴자에 대한 노후설계 서비스의 선택의 문제에 어떤 프레임을 적용할 것인지 정책입안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한다.

노년기의 삶의 행복의 문제는 초, 중, 고, 대학교육과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발생되고 연결되는 과업의 속성상 전 생애적 평생교육 프레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삶의 질에 관한 의무적 교육 프레임은 방법적으로 위험적 속성을 지니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장기 지속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현실과 유리된 은퇴준비를 위한 목적자금 설계 위주의 획일적 의무교육은 삶의 전체적 접근이 아니라 돈 문제에 국한된 시각 고정효과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본인의 적정한 삶의 질의 정도와 크기를 설정함으로써 그 바람에 맞는 적절한 긴장과 함께 풍요한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사회와 국가는 준비하고 개인은 그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삶에 대한 프레임을 정립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의해 설정된 틀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 하도록 기능하기도 한다. 초, 중, 고, 대학생의 시기를 거쳐 직장생활 등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또는 한 문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 틀은, 한 개인의 강력한 마음의 준비를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세대 간의 행복감 증대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며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에 대한 안정화 기능도 하게 된다.

4.6 내가 설정하는 삶의 질, 비교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그 사회적 동물의 속성상 누군가와 늘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중의 하나다.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노년기의 준비의 주체는 여전히 ‘스스로’ 이고 노년기 삶의 질의 영위의 주체 또한 ‘자기 자신’이다. 나의 물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신체적 환경, 사회관계의 폭 등을 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본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노년에 대한 관점은 ‘간헐적 관심자’인 주변인이 아니다. ‘본질적 관심자’인 ‘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족, 사회, 국가가 아니라 나의 처지에서 노년기에 대한 진지함이 시작되어야 한다. 스스로 삶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면 나의 세상의 대한 해석의 틀이

마련된다. 정립된 시각은 자기주도적 삶을 갖게 되고 치우침이 덜 하게 된다.

우리는 노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였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노년기 준비에 관한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에서 `성공적인 은퇴준비`로 대부분 현금 10~12억원 정도는 준비해야 은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이 함께 고려된 경제적 부담능력이 노년생활의 주요 핵심임을 강조 하는 것일 것이다. 경제적 여유는 행복해지기 위한 많은 필요조건들을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노후자금 준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력이 충분한 것만으로 노년기 삶의 행복감이 풍성해 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행복전문가인 에드디너 교수(Diener,E)와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의 연구³⁸⁾결과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들을 엿볼 수 있다. 일정 대상자의 행복을 측정 한 후에 그 중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의 사람들의 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나머지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 건강, 운동, 종교가 아니었다.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한 10%의 사람들은 바로 `관계`에 있어서 특징을 보였다. 혼자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풍성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고,가장 행복한 상위 10%인 22명중에서 21명이 조사당시 이성 친구가 있었다` 는 연구 결과는 노년기 행복은 풍부한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경제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은 타인과 어우러져 더 큰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재무적 요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복감을 좌우하는 비재무적 요소들도 노년기 행복감 결정요소로 함께 작용 한다.IMF 이후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리먼브라더스 등 금융기관 연쇄파산, 산업계의 전반적인 긴축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에서의 실현소득이 감소하고, 장기근속 불안정과 장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자녀의 대한 부양기간 연장을 초래하고 본인의 노년 준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노년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를 지나치게 경제적 준비만을 강조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등 돈으로 가득 찬 노후만이 가능한 생활을 강조하고 집착하는 것은,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재의 행복을 못 보게 한다. 장래 누려야 되는 의미 있는 삶의 충만함과도 멀어질 수 있다.최소한의 노후 준비 독립의 글과 교육은 기본적인 물질준비와 함께 더불어 보다 더 풍성한 행복을 창출케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함께 채워져야 한다.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가족 내 대화가 있는 화목, 주변지인들과의 원만한 조화의 틀은 노후 행복감의 중요요소이며 어느 날 갑자기 형성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복의 요소, 삶의 질을 배가 시켜주는 기본적인 필수요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전제 한다.물질이 충분함에도 행복해 질수 없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 지고 어딘가 모를 안심을 주는 사람, 삶의 어려움을 친밀함으로 거리낌 없이 사회적 지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제 새로운 노후준비의 하나로 그런 `누구`를 가져야 하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노년기 삶에 대한 명확한 의미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장시간의 인식과 훈련으로 준비된 노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나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회를 풍성하게 한다.

나의 기준이 정립됨 없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의 여정은 순간순간 많은 에너지 손실을

38)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 p.200

Diener,E.,&Seligman,M.P (2002).very happy people.psychological science,13,81-84

초래 한다. 간헐적 관심자인 타인들과의 비교는 상대적 과잉긴장으로 삶의 여유를 앗아가게 된다. 현재에 기쁨이 없는 지금의 조건들에 감사함이 없는 삶은 노년기 준비에 있어서도 황금의 노년기에도 끝없는 타인과의 비교로 현재도 미래에도 새로운 기쁨을 얻기 어렵다. 최인철의 연구³⁹⁾ 결과는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횡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지나친 긴장으로 과정의 기쁨을 앗아간다. 또한 지나친 비교는 성취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타인 지향성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 중심성을 상실하여 현실 안주하는 삶으로 발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노년의 삶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적정한 나만의 색채감을 가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타인과의 비교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우월과 열등을 줄 뿐 열심히 준비하고 추구하는 데서 오는 ‘행복’을 주지 못한다.

노년기 삶 준비의 핵심 원칙중의 하나로 나의 삶은 타인과 비교 되어질 성질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점이다. 타인과 물질적 환경적 조건들에 집중하는 획일적 비교보다는, 본인 스스로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 중심적 목표와 구체화를 위한 계획의 처음과 지금까지의 비교가 더 절실한 것이 노년기 준비의 문제다. 자신이 꿈꾸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를 향상시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의 연속이 ‘가치 있는 나’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년 준비의 모습이어야 한다. 노년기는 내가 만든 색깔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사회에는 다양한 색상과 삶의 질감이 존재 한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핑크 빛이라도 내가 구성하고 선호하는 색이 아니라면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질의 색깔은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적 비중이 큰 색감을 내가 만들어 내고 깊이 음미해 보는 스스로의 독특함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노년기다. 나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준거에 따라 삶의 질을 설정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그에 따라 해석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행을 이끈다. 나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의 질 만족감도 달라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타인을 의식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일뿐이다. 세상은 그처럼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항상 주지 않는다. 타인은 나에게 관심을 오래 갖지도 않는다.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조용히 빠져나온다면 비교함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빈곤감이나 허탈감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비교로부터 자유한 여유로운 삶의 크기는 생활 곳곳에서 더 커질 것이다.

V. 노년기 삶의 질, 경제적 준비의 한계를 넘어서

노년기 삶의 질은 제한된 수입으로 현재의 행복감을 억제하면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년을 위해 저축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보았다. 노년기 행복의 관계요소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질적 수준, 시간자본 에너지와의 긴밀한 관련성, 경제적 준비를 포함한다. 노년기 삶의 총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년기 준비의 의미 인식과 그 실현 과정에서의 행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더 빨리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때부터 삶의 질의 문제는 본질을 다시 프레임하기 시작하게 되고 전체를 관망하게 된다. 어떤

39)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p191-192.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노년기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그동안 삶에 대한 노년기의 질적 요소를 고려함 없이 필요비용의 전체적 크기, 저축의 양, 생활 속의 단순비용문제로 인식하는 등 제한적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데 그친 나머지, 경제적 현실이 허용되지 않는 주변부 상황에서 본질을 찾곤 했다. 삶의 질의 문제는 결코 경제적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대우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지역사회에서의 본인의 사회적 기여로 인한 존재감과 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크기의 독립적 생활모습 등이 더 큰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노년기에 나에 대한 의미 지워지는 속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주관적 삶의 풍성함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채워가는 행복이 노년에 이르는 기쁨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결정되고 구성되며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며,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랫동안 형성해 온 환경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삶의 풍성함 정도의 문제 즉, 삶의 질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단순한 도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노년기의 삶은 경제적 조건과 아울러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질마저도 관련되는 핵심가치로서 전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는 ‘선택적 준비’가 아니라 ‘의무적 포괄적 준비’로 신중해져야 한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면서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⁰⁾. 인간은 경제적 소유 자체에서의 행복보다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 내지 그 과정을 통한 새로운 삶의 경험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이다.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긍정적 관계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축적되고 준비된 노년기의 삶의 준비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히스토리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평균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의 준비가 아니라 나의 개별성과 독특성이 조화된 삶의 질에 관한 정립이 있어야 한다. 자극이나 재화의 양 등의 동일한 속성에 대한 물리적 반응과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삶의 질적 수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질의 문제는 처음부터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해석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는 성취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삶의 질의 문제는 경제력의 비교, 시간상의 비교, 상상속의 비교, 성취물, 결과물 등 비교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그 발현으로서의 노력, 그에 함께하는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 평가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자기평가물의 속성을 많이 가진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질은 타인과 객관적으로 결과물으로써 비교 평가 되어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현실에 근거한 노년기의 삶에 대한 본질적 가치정립에서 시작되는, 자기몸짓에서 비롯된 의미 총합적 결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노년기 삶의 질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보장 된다.

40)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p191-192.

<참고문헌 및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 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2, p.5
- 김선빈 외, 긍정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9, p.25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p.38
- 박동석 외(2003), 고령화쇼크, 서울:굿인포메이션, p.9
- 원동연,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김영사, 2009, p.188
-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1999, p.85-86
- 정민걸,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92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95
-이해하는 생태학, 공주대학교출판부, 2005, P.111
-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1, p.19, p.120, p.126, p.191-192, p.200
-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2000, p.139-140
- 기획재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2011년 9월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 현황 및 시사점, 2010년 5월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2011, 99호
- 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시대 대응 국민인식조사결과, 보건복지 제99호, 2011, 8월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노인실태조사', 2009년 6월
- 조선일보 기사, 2010년 12월 10일
- 한국씨티은행, 온라인 설문 조사, 2009
-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고령자와 여성 부문 조사, 2011년 10월
- Diener,E.,&Seligman,M.P(2002). very happy people.psychological science,13, p.81-84
- Keynes,J.M.(1936),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Interest and Money, p.161~16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3123261>
-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713/38758921/1>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629220041&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30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0131431374100
- http://tgrrc.snu.ac.kr/bbs/board.php?bo_table=retire_sub2_5&wr_id=85

The addition of retirement research paradigms : Recognized framework of retirement and capital formation by the time

Deoksoon Hwang⁴¹⁾ . Gyunseok Heo⁴²⁾

<Abstract>

The issue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aging society connote not only the problem regarding increasing number of elder people but also theoretical/social/political issues. The life quality of in the stage of old age is related to omni-directionalelements of social ecology including individuals. The issue related to life quality of elder peopleis not a problem of a particular individual and period but connotes social expensiveness. Therefore such issue needs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elder people themselves, their family, local society and the nation together. This research has contemplated the contents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various mechanisms in individual and social level to improve life quality of elder people which is for expanding the problems related to elder people from individual level to a problem of entire society. As the life quality of elder people can be imbalanced since aging becomes a burden at individual/social/national levels, we have attempted to contemplate the problems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a comprehensive social level. The satisfaction o f elder people on their life is not led by sorting out economic problem only. Therefor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dentify the functional meaning of the all-around element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social system and has tried to apply the elements as time asset and theirpractical usability to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elder people. The elements related to life quality in the stage of old age include the quality of social networks, time asset, correlation-to energy and economic preparation. Further, they have our whole personality as the core value related to our thoughts and activities. Accordingly, the attitude toward life in the stage of old age has been linked to the contents and program as the ‘obligatory & comprehensive preparation’ rather than ‘selective preparation’ . Moreover,

41)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dshwang@chonnam.ac.kr

42) Doctoral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win-hgs@hanmail.net

this paper has contemplated the characteristics of managing mechanisms for quality of life in the social system which can be determined by our efforts and interpret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life quality in which individualization and uniqueness are harmonized. This is to prove the fact that the life quality in the stage of old age can be guaranteed by the comprehensive results of personal individual efforts. A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establishe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elements related to life quality of elder people, the policies of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are being operated separately. Therefore, the issues related to quality of life needs to be handled through more proactive policy controlling and integration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issue has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self-evaluation which combines objective social environment, individual volition, the efforts for revelation of the volition and evaluation on subjective meaning-making for the related processes.

[Key Words: Aging Society, Elder People, Quality of Life, social integration, Time Asset, Obligatory Preparation]